

어느 조직이든 리더십이 조직이 성패를 좌우하게 마련이다. 이는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몇몇 실행단체들은 개인의 실행에 치중하고 간혹 기회가 닿으면 자원봉사를 펼치던 과거의 틀에서 탈피해, 불교적 삶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 기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불자여성 리더십교육강좌를 펼치고 있는 여성불교개발원이나,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가 최근 마련한 '마이(마하야나) 리더스 클럽', 대한불교청년회, 대학불교연맹회 등이 준비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포부도 알차다.

실행단체들, 인재양성 팔 걷고 나섰다



'리더십'을 배우자!

'마이 리더스 클럽' 16일부터

'마이 리더스 클럽'은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가 올해 처음 개설하는 통합리더십 교육이다. 8월 16일~11월 1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 만해 NGO교육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며 불교와 리더십, 경영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접목했다. (02)2278-3417

정교회 지도법사이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인류는 깨운 위대한 스승, 인간 붓다'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생을 다시 조명하는 것을 비롯,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경준 원장, 부산 한국타벳센터를 이끄는 초펠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프로그램 전반에 자칫 '외형적 성공'에 매몰될 수 있는 기존 리더십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相生)을 기본으로 한 불교적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화엄경에서 선재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았던 것에 빗대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는, 강좌를 마친 뒤에도 수강생들의 클럽을

꾸러 매월 한 번씩 종교지도자와 석학, 경제관료, CEO 등에게 특강을 듣는 정기월례 조찬 포럼을 열고, 해마다 한 차례씩 달라이 라마, 티벳한, 슬라키바라사 등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들과의 교류 행사도 열겠다는 포부다.

2003년부터 해마다 대학생 불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리더십 캠프를 펼쳤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보라·이하 대불련)는 올해도 8월 10~15일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아름다운 정춘, 대학생 불자들의 화랑선언'을 주제로 '2006 리더십 캠프'를 개최한다. (02)732-0239

'불교적 리더십' 개발 고민중

대불련 리더십캠프는 창의성, 대화능력 등 젊은 불자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화와 영상매체를 통한 리더십 교육, 대화방법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력 개발 등이 주를 이룬다.

또 캠프 마지막 단계는 각자의 구체적 목표를 정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는 내용

으로 구성돼있다. 불자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이하 대불청)는 올해 하반기 중 만해대학에 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총 18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738-3386

그간 인문교육에 특화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을 도입하는 등 리더십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던 대불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지난해 불자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제1회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도 리더십 강좌 교육과정을 기초, 기본, 심화교육으로 나눠 준비 중이다. (02)722-2101

누구나 어디서나 CEO처럼

리더십 강좌를 개설하는 이들 단체의 특징이 있다면, 일원지이나 오픈이던 리더십 대상으로 한정하는 다른 리더십 강좌와는 달리 불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는 점이다. 불교아카데미 이영철 소장은 "그간 대부분의 리더십 교육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도자나 준지도자만을 대상으로 한 '진목모임' 성격이 짙었다"고 지적하며 "불교와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들어 리더십 교육에 눈을 돌리는 실행단체들이 늘어난 이유로는, 한계에 부딪힌 불교계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간에 포교활동을 담당할 기존 불자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을 이끄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대불련 신보라 회장은 "언제 어느 곳에 서든 최고경영자(CEO)처럼 목적의식이 뚜렷한 불자들을 양성해 이들을 통한 포교와 전법활동을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실행방법"이라며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청년 불자들이 각 대학으로 돌아가 불자 뿐 아니라 무종교인·타종교인까지도 선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이화 사무국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자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사회에 나가서 불교적 사명을 갖고 불교를 전파해 이 갈 수 있는 인재 개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by@buddhapia.com

파라미터 연합캠프 1300명 참가 신행·전통문화·답사 체험



제9회 파라미터청소년 전국연합캠프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한려·남해 유스호스텔 등 경남 남해군 일대에서 열렸다.

파라미터 청소년 회원과 일반 청소년 1300명이 참가한 연합캠프는 참가 청소년들이 문수·보현·관음·미륵 4개조로 나눠 신행·회향·전통문화·답사 등 4개의 프로그램을 돌아가며 체험하고 즐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행 프로그램으로는 양초로 불교캐릭터 만들기, 불교 애니메이션(성격검사, 답과 연꽃 만들기)을 진행했으며, 새끼 꼬기, 투호, 술대 만들기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 문화를 체험했다.

답사 프로그램으로는 금산 보리암 탐방이 진행됐으며 래프팅과 갯벌체험의 회향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다.

또 통일을 주제로 한 통일백일장도 열렸으며, 지부별 예선 통과자(2명)들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룬 음악놀이 페스티벌(사건)은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연출했다.

파라미터 조찬교 과정은 "이번 캠프는 파라미터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것이어서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명우 기자

대불청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

대한불교청년회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에 나섰다.

이번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불교문화탐색을 제향하고 청년회원들의 활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대불청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단은 바콩사원·프레야코 사원·톨레이 사원·반테이 스페이 사원 등 톨루스 유적지를 답사하고 앙코르를 유적군과 앙코르와트 등을 둘러본다. 한명우 기자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품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긴다.

“실험 사례” 폐 식욕유에 마가목 맥을 쉬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업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갑장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현상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 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불어를 넣으면 불어는 배를 뒤집고 활력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불어는 평정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408염주, 손목압정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